

# 平成29年度大学院地球社会統合科学府

## 修士課程（冬季）入学試験

### 入学試験問題

#### ⑫ アジア言語文化

##### 注意事項

1. 問題は「はじめ」の合図があるまで開けないこと。
2. 試験開始後、解答用紙に受験番号等を明記すること。
3. 解答用紙は、必ず全部提出すること。
4. 問題冊子は持ち帰ってよい。
5. 指定の解答用紙を用いること。

\* 「アジア言語文化」科目は、A「中国関係」、B「韓国朝鮮関係」の大問に分かれる。  
いずれか一つを選択して解答しなさい。

A 「中国関係」

1 次の2首の「採桑子」を、それぞれ日本語に訳しなさい。(80点)

I 晏殊「採桑子」

時光只解催人老  
不信多情  
長恨離亭  
滴淚春衫酒易醒

梧桐昨夜西風急  
淡月朧明  
好夢頻驚  
何處高樓雁一聲

II 歐陽脩「採桑子」

春深雨過西湖好  
百卉爭妍  
蝶亂蜂喧  
晴日催花暖欲然

蘭橈畫舸悠悠去  
疑是神仙  
返照波間  
水闊風高颺管絃

2 次の歐陽脩「資政殿學士戸部侍郎文正范公神道碑銘」について、以下の質問に答えなさい。(70点)

自公坐呂公貶、羣士大夫各持二公曲直。呂公患之、凡直公者、皆指爲党、或坐竄逐。及呂公復相、公亦再起被用。於是二公驩然相約、戮力平賊。天下之士皆以此多二公。然朋党之論遂起、而不能止。上既賢公、可大用。故卒置羣議而用之。

(注) 公………范仲淹  
呂公……呂夷簡

(1) この文章を全て日本語に訳しなさい。(40点)

(2) 下線部「朋党之論」について、北宋時代にはしばしば朋党の議論が起こるが、北宋時代の朋党の議論について、知るところを述べなさい。(30点)

3 次の項目から5つを選んで、それぞれ100字程度で説明しなさい(選んだ番号を明示して書き始めること)。(10点×5)

- (1) 劉克莊
- (2) 江湖派
- (3) 艾軒学派
- (4) 夷堅志
- (5) 順宗実録
- (6) 文選
- (7) 詩品
- (8) 錢杏邨
- (9) 『語絲』
- (10) 陶晶孫
- (11) 『蕙的風』
- (12) 伊藤虎丸

## B 「韓国朝鮮關係」

I 次の新聞記事(『東亜日報』2017年1月23日付)を適宜に要約した上で、話題となっていることについて、解説するとともに、下線部を和訳しなさい。(100点)

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‘너의 이름은’이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.

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, ‘너의 이름은’은 개봉 19일 만인 22일 오후 3시, 누적 관객수 302만 1651명을 기록했다.

이 기록은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역대 일본영화 흥행 1위이자,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 8위였던 ‘하울의 움직이는 성’(2004)의 최종 스코어(301만 5165명)를 앞지른다.  
또한 일본 외 국가를 포함한 전체 애니메이션 흥행 순위로는 8위에 해당한다.

이에 대해 한국 네티즌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. 네이버 이용자 qoco\*\*\*\*는 “진짜 너무 재밌다. 영화관에서 3번 봤다. 신카이 마코토 작품 다 좋아하는데 이번작이 최고인 것 같음”이라고 평가했다.

또한 suin\*\*\*\*는 “만화그림이 실사를 보는 듯 착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다. 사랑 이야기가 낭만적이며 일본사회를 잘 표현해 좋았다”고 극찬했으며, anby\*\*\*\*는 “진짜 영화 2번 더 보고 싶다. 눈에 주인공들이랑 귀에 OST가 자꾸 들린다”고 말했다.

반면 naga\*\*\*\*는 “덕후의 덕후에 의한 덕후를 위한 영화. 연애한번 해본 적 없이 여자에 대한 환상만 갖고 있는 덕후들이 보기에 최적의 영화”라고 혹평했다. 또 semi\*\*\*\*는 “솔직히 말해서 ost랑 그림이 이뻐서 흥행했다. 스토리가 딱히 신선하다거나 하는 건 없었음”이라고 말했으며, atam\*\*\*\*는 “언론이 만든 신화 궁금해서 봤긴 했지만 이게 뭐냐? 하고 나왔다”고 평가했다.

한편 ‘너의 이름은’ 감독 신카이 마코토는 6일 내한 당시 “300만 명이 넘으면 한번 더 한국에 오겠다”고 약속한 바 있다.

II 朝鮮語学における、所謂「語基説」について簡略に解説しなさい。(25点)

III 次の項目から5つを選んで、それぞれ100字程度で説明しなさい(選んだ番号を明示して書き始めること)。(15点×5)

- ① 箕子
- ② 三国遺事

- ③ 海游録
- ④ 量案
- ⑤ 龍飛御天歌
- ⑥ 興宣大院君
- ⑦ 梨花学堂
- ⑧ 農村振興運動
- ⑨ 朝鮮総督府取調局
- ⑩ 湖南財閥
- ⑪ 崔徳新
- ⑫ 村山智順